

박구용 전남대 교수가 말하는 '가로지르기 논술' 공부법

여러 교과목 넘나들 수 있도록 철학·논리학·토론 병행 학습을



■ '가로지르기 논술' 위해 필요한 능력



통합 논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광주학생회관관장 홍성룡은 매주 토요일 운영 중인 '중학교 논술교실' 회원과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와 논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문제 찾기 가로지르기 논술'을 주제로 한 강의를 한 뒤 참석자들과 토론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로지르기 논술이란 통합 논술이 한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과목을 넘나들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겨난 말이다. 박 교수의 강의를 통해 현대 사회의 변화가 요구하는 올바른 논술에 대해 들어보자.

박 교수는 "가로지르기 논술은 '만남, 소통, 연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넓은 개념이다"며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도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기를 형성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논술이란 ▲비판적이고 총체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과 토론하듯 ▲근거를 제시하며 자기 주장을 펼치는 논리적 글쓰기다. 이에 따라 철학·토론·논리학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내에서 이같은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박 교수는 다음의 세 가지를 주문했다.

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교사는 올바른 제시문 찾기에 고심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퍼온 단순 지식이 아닌 고전의 문장들이 좋다. 실제 논술시험에서 고전은 종종 제시문으로 등장한다. 올바른 '논제찾기'를 위해서는 고전 해석 능력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많이 읽는 것보다 꼼꼼하게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논제·문제찾기-토론문제 설정-글쓰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참여자가 관찰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가 관찰자의 입장에만 머무른 때 토론은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 토론 능력은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관점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과 진리·정의·아름다움을 찾아가는 협업 능력'이기 때문이다.

◇교과의 철학적 배경을 학습할 것-예를 들어 국어나 영어 교과라면 예술철학과 언어철학을, 역사 교과사는 역사철학을, 수학 교과사는 형이상학을 함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만을 담고 있는 교과서와 참고서 중심의 현 교육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교과서가 진정한 의미의 참고서가 돼야 하며, 교과서에서 중요한 주제와 주제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 다음 주제와 관련한 교재를 찾고, 재료를 뒤선 안 된다. 현실 속의 어떤 것도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일상 생활에서 주제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은 고전에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헌을 찾도록 해야 한다. 해석 가능성이 무한한 고전은 그 자체로 다양한 토론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토론 수업의 비중을 늘릴 것=좋은 논술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내적인 정합성(整合性)만을 갖춘 것이 아니라 다른 입장과 토론하듯 쓰여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제 설정. 예를 들어 주제는 '사형제도의 찬반'보다는 '체벌에 대한 담론'처럼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어야 한다.

제시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해석이 가

◇모든 교과를 가로지르는 것=이상적인 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심화 학습과 토론 교육, 글쓰기가 병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통합논술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모둠별 연계 수업은 총체적 사유의 주체가 교사로 설정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주제는 교사와 함께 학생도 포함돼야 마땅하다.

사유의 가로지르기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논리학 또는 철학 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 이같은 교육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통합논술이 일부 대학의 입시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논리학·철학 교육을 학교에서 진흥 시켜야 하는 필요하다. 또한 모든 교과에서 토론과 글쓰기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글짓기 대회 나가볼까

연금공단·경성대 등 공모 잇따라

글짓기 대회에 참가해 다른 학생들과 글쓰기 능력을 겨뤄보는 일도 권할 만하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문화 또는 수필 등 전국의 글짓기 대회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9회 국민연금 청소년 글짓기 현상 공모'를 실시한다. 원고 접수는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주제의 글을 초등부(4~6학년) A4 용지 2매 내외, 중·고등부 A4 용지 4매 내외로 써서 보내면 된다. 총 142명에게 3천7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성대학교는 '제18회 전국 고교생 문예작품 공모'를 실시한다. 전국의 고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집 분야는 시(시조), 소설, 시나리오 및 희곡 등이다. 시나 시조는 3편 이상, 나머지는 1편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8월 20일까지며 발표 및 시상은 9월 14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성대학교 국문과 홈페이지(http://ks.ac.kr/kore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백지청소년사회교육원은 오는 6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전국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제8회 백지전국 청소년글쓰기대회'를 개최한다. 문의 062-368-8041.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학생들에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논리학·철학교육을 이수하는 강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최근 열린 '독서와 논술에 관한 토론회' 모습. (광주학생회관 제공)

대인동삼일부동산
☎(대)223-1140, 5210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무등공인중개사
☎(대)383-5221
● 건물투자
● 땅투자(상무지구)
● 모텔매매
● 상가사임(상무지구)
● 임야(농장)
● 공장·창고 및 기타
● 주거용 부지

정우부동산
☎(대)675-4788-7
건물매매
토지매매
임야매매

첨단월세공인중개사
☎(대)972-4585
★ 급매매 ★
●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 주거지역 1000평
● 첨단중심상업지역 1100평

국민공인중개사
☎(대)011-635-7939
건물
땅
주유소 전문중개
공정매매
빌딩 임대

알파공인중개사
☎(대)974-0229
상업용건물
토지매매
양산동 상업용지

존경하는 동료·선배분들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
최고의 A급 상가를 찾고 계신분들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노래방 요양숙박(최근 3개월)
BM公認仲士事務所